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31 주차 (롬 11:27~12:2)
(2016년 4월 1일 - 2018년 4월 7일)
(제5권 31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31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8 년 4 월 1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주일)

오늘의 본문 (롬 11:27~32)

- ²⁷ καὶ αὐτὴ αὐτοῖς ἢ παρ' ἐμοῦ διαθήκη, (그들과 함께 했던 나의 언약이 이것이다)
ὅταν ἀρέλωμαι τὰς ἀμαρτίας αὐτῶν.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 ²⁸ κατὰ μὲν τὸ εὐαγγέλιον ἐχθροὶ δι' ἑμῶς, (사실 복음을 따라, [그들은] 당신들 편에서는 원수다)
κατὰ δὲ τὴν ἐκλογὴν ἀγαπητοὶ διὰ τοὺς πατέρας
(그러나 택하심으로 말하면 [그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받은 자들이다)
- ²⁹ ἀμεταμέλητα γὰρ τὰ χαρίσματα καὶ ἡ κλῆσις τοῦ θεοῦ.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 ³⁰ ὥσπερ γὰρ ὑμεῖς ποτε ἠπειθήσατε τῷ θεῷ, (너희가 한때 하나님께 불복종했다)
νῦν δὲ (그러나 지금)
ἠλεήθητε τῇ τούτων ἀπειθείᾳ, (그들의 불복종으로 너희가 은혜를 입었다)
- ³¹ οὕτως καὶ οὗτοι νῦν ἠπειθήσαν τῷ ὑμετέρῳ ἔλεει, (그런데 지금 너희에 대한 긍휼 때문에 이들이 순종치 아니했다)
ἵνα καὶ αὐτοὶ [νῦν] ἐλεηθῶσιν. (그 결과 [지금] 저희도 긍휼을 얻게될 것이다)
- ³² συνέκλεισεν γὰρ ὁ θεὸς τοὺς πάντας εἰς ἀπειθειαν,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불순종 안에 묶어 놓으셨다)
ἵνα τοὺς πάντας ἐλέησῃ. (그 결과 그가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방인들은 복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선택에서 배제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이란 이스라엘의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선택받지 못한 다수의 이방인들과 선택받은 소수의 이스라엘 딱 둘로 나뉘어졌다. 앞서 설명했듯이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아브람을 불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시작되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는 이삭을 선택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스마엘은 자연스럽게 배제되어 이방인이 되었다.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에서는 탈락되어 이방인이 되었다. 에서는 분명 택함 받은 이삭의 맏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됨으로써 이방인으로 전락했다. 그것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이방인이 된 셈이다. 바울은 에서가 탈락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야곱의 아들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열두 지파가 완성된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세상은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과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나뉘어졌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한때 하나님께 불복종했다”로 말한다. 사실 이 말을 듣는 이방인들은 매우 억울했을 것이다. 이방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나안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그의 아버지 함이 노아의 별거벗은 것을 보고 덮어주지 않고 다른 형제들에게 누설했기 때문이다. 사실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게 됐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고 단지 아버지 함의 죄를 덮어쓰고 저주를 받은 것으로만 기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살아 온 그 땅이 왜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야 하는 지도 몰랐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잠시 머물 때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다.

“¹⁸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¹⁹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²⁰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²¹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창 15:18-21).

이들 족속은 팔레스틴 땅에서 각기 부족을 이루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는 사람까지 있었다(수 2:11 참조).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건듯 건너왔다는 말과 그렇게 출애굽한 자들이 다름 아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물러온다는데 놀라지 않을 자가 있겠는가! 그런 그들이 사십 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 한해 두해 지나가며 그들의 뇌리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잊혀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닥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단숨에 점령해버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며 자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자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들에게는 단 한번도 구원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느새 자기들은 이스라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대적이 돼 버린 것이다. 그 전쟁에서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나마 살아 남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시간을 내어 친히 그들을 찾아가셨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여행할 때 어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마 15:22).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다. 참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녀를 좀 말려서 돌려보내시라고 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침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 주셨고 그 즉시로 그의 딸이 회복되었다.

이 사건으로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과 불복종 상태에 있던, 그래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한 가나안 여인이 긍휼을 입었다. 그녀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녀 스스로 예수님이 사역하던 갈릴리나 예루살렘을 찾아 온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녀를 찾아가셨고 그 병을 고치셨다. 그녀가 처했던 현실은 절망적이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카코스 다이모니제타이’(κακῶς δαιμονίζεται)로 ‘악하게 대적한다’는 뜻이다. 카코스(κακῶς)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다. 참고로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하얀 소복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에는 피가 흐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주로 대적자라는 뜻인데 정결한 하나님의 영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더러운 영을 뜻한다. 즉, 진리를 벗어나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단어다. 하나님을 떠나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셨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다.

“¹¹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 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¹²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¹³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와졌느니라”(엡 2:11-13).

하나님은 인간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신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시기심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들을 궁핍함을 구원의 도구로 삼기도 하신다.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야말로 심묘막측하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기필코 구원하시는 분이다.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구원 (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 11:27~24)

- ³³ ὁ βάθος πλούτου καὶ σοφίας καὶ γνώσεως θεοῦ· (오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혜와 지식의 깊이어!)
ὡς ἀνεξερράνητα τὰ κρίματα αὐτοῦ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καὶ ἀνεξήγηστοὶ αἱ ὁδοὶ αὐτοῦ·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 ³⁴ τίς γὰρ ἔγνω νοῦν κυρίου;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ἢ τίς σύμβουλος αὐτοῦ ἐγένετο; (또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 ³⁵ ἢ τίς προέδωκεν αὐτῷ, καὶ ἀνταποδοθήσεται αὐτῷ; (또는 누가 그에게 먼저 드러서 되갚음을 받겠는가?)
- ³⁶ ὅτι ἐξ αὐτοῦ καὶ δι' αὐτοῦ καὶ εἰς αὐτὸν τὰ πάντα· (왜냐하면 만물이 그로부터, 그를 통하여, 그에게로)
αὐτῷ ἢ δόξα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 ἀμήν·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아멘)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다른 어떤 이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니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게 사실이다. 일례로 우리 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진 것은 천주교를 기준으로 해도 18 세기 무렵이다. 그 전에는 아예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 평등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려면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다간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기회를 주셨어야만 한다. 단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그래서는 안 된다. 아마도 한국인들 중에 적어도 세종 대왕은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필자는 실제로 누군가로부터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겠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유감스럽지만 이순신 장군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고 말해주었다. 질문하는 분은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분은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박탈하실 수가 있느냐며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항변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 절대 공평하지 않은 분이시다. 사랑이 많다는 것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 일부만을 편애하신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호혜적이고 평등한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아담 이래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인간들을 향해 무죄 선언을 하시고 인간들이 그 사실을 믿든 말든 상관없이 그들 모두를 구원하셔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내내 계속해서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을 갈라치기 해왔다. 이미 수차례 언급했듯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갈라치기 하셨으며, 아곱과 에서를 갈라치기 하셨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과 그 외 이방인들을 갈라치기 하셨고 그 과정에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저주의 심볼이 되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항변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구원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구원을 받는 자가 나오고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평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역사적으로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 사

랑의 크기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기회조차 박탈 당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선택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인해 이방인을 대적으로 돌려 놓았으나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조건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것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자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 오게 된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 바울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혜와 지식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도 인간의 지혜로는 찾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인간이 어떻게 주의 생각을 알 수 있겠는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직접 만나고 회복시켜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구원의 과정이 너무도 미스테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일례로 38 년이나 병으로 누워있던 그 환자는 스스로가 믿는 방법으로 구원받기를 기대했다. 누군가 물이 동할 때 자신을 물에 넣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가 기대한 구원의 방법은 베데스다 연못 물이 동할 때 자기 몸을 담그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단 한번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한 마디로 자신이 구원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고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정하신 때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사건에 진리의 메시지를 담으셨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했는가? 어떻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예수님 홀로 그 엄청난 구원을 완성하셨을까? 바울은 그 해답을 아주 명료하게 제시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또 그에게로 돌아간다. 만물이 그의 섭리 안에 있다. 당연히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주체시다. 구원의 대상을 정하고 방법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다.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성에 대한 바울의 편지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골로새서 1 장이다.

“¹³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¹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¹⁵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¹⁶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¹⁷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¹⁸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¹⁹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²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13-20).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구원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정한 예배 (1):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 12:1~2)

- ¹ Παρακαλῶ οὖν ὑμᾶς, ἀδελφοί,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διὰ τῶν οἰκτιρῶν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παραστήσαι τὰ σώματα ὑμῶν (너희 몸을 세우라)
θεσίαν ζῶσαν ἁγίαν εὐάρεστον τῷ θεῷ, (하나님 앞에 살아 있고,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을)
τὴν λογικὴν λατρείαν ὑμῶν.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 ² καὶ μὴ συσημαίεσθε τῷ αἰῶνι τούτῳ,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ἀλλὰ μεταμορφοῦσθε τῇ ἀνακαινώσει τοῦ νοῦς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라)
εἰς τὸ δοκιμάζειν ὑμᾶς τί τὸ θέλημα τοῦ θεοῦ, (그 결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이다)
τὸ ἀγαθὸν καὶ εὐάρεστον καὶ τέλειον.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그리스도인인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예배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믿음 생활의 기본이라 여긴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지 여부로 신앙의 척도를 삼는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말이고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대변한다는 뜻이다.

영어 단어에 Church goer라는 말이 있다. 일요일만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보다는 일상의 습관으로 교회에 나간다. 설교를 일종의 도덕적인 교훈으로 여기고 주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는데 치중하며 때론 마치 콘서트장에 온 관객처럼 예배를 보기도 한다. 그런 모습으로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을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예배자라고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예배일까? 도대체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헬라이어 원문에는 1절과 2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1절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청이라면 2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지에 대한 명령이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먼저 각자의 몸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 간청한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이 참으로 모호하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세운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닌가? 바울은 명확하게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성도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 성도가 스스로의 열심으로 자격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성도의 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제물, 거룩한 제물,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이 된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다. 이를 다른 말로 예배라 한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 있고, 거룩하며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성도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다.

따라서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의 자비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놀라운 경험이다. 바울이 말한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면 그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던 주일 예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서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 중 12장 1절을 다시 읽어 보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당신들을 권면한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너희 몸을] 살아 있고 거룩하며, 받아들일 만한 제물로 [세우도록, [이것이] 너희의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다.”(롬 12:1).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구속의 의미를 한결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채 서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죽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간청하고 있다. 성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제물로 설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자격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각자의 몸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번역돼 있는데 여기서 자비로 번역된 헬리어는 ‘오이키티르모스’ (οἰκτιρμός)다.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의 불행, 죄, 자격없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그것으로부터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보여 준 게 자비의 모습이다.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다. 만약, 누군가 그를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죽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극적으로 살아났다.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불의한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행, 죄, 자격없음에 관여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죄 없다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셔야만 한다. 그런데 그 자비는 공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누군가가 희생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자신의 온전을 포기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지위를 포기하시고 불완전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예수님은 불의를 저지른 적도, 죄를 지은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홀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고통을 달게 받으셨다. 그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모든 자격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흘림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진정한 예배란 자격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힘 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 덕택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까? 당신의 손에 들고 있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 제물이 어떻게 당신을 거룩하게 해 주나요?

진정한 예배 (2): 성도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 12:1~2)

- ¹ Παρακαλῶ οὖν ὑμᾶς, ἀδελφοί,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διὰ τῶν οἰκτιρῶν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παραστήσαι τὰ σώματα ὑμῶν (너희 몸을 세우라)
θεσίαν ζῶσαν ἁγίαν εὐάρεστον τῷ θεῷ, (하나님 앞에 살아 있고,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희생제물을)
τὴν λογικὴν λατρείαν ὑμῶν·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 ² καὶ μὴ συσημαίεσθε τῷ αἵωνι τούτῳ,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ἀλλὰ μεταμορφοῦσθε τῇ ἀνακαινώσει τοῦ νοῦς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라)
εἰς τὸ δοκιμάζειν ὑμᾶς τί τὸ θέλημα τοῦ θεοῦ, (그 결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이다)
τὸ ἀγαθὸν καὶ εὐάρεστον καὶ τέλειον.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살아있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일만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죽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오직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자만이 설 수 있다. 부정한 자는 그럴 수 없다. 살아 있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 성도는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제물이다. 우리가 제물을 들고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곧 제물인 것이다. 그것이 예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런데 아무나 제물이 될 수는 없다. 거기엔 반드시 조건이 있다. 사도 바울은 제물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반드시 살아 있는 것이어야 하고,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받아들일만한 것이어야 한다 한다. 바울은 성도의 제물됨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예배는 너무 형식에 치우쳐 있는 느낌이다. 흔히들 예배라고 하면 찬양하고 기도하며 설교를 듣는 걸로 착각한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예배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지금 예배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일종의 집회에 가깝다. 일종의 성경 사경회 같은 것이다. 성도들이 모여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성경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예배의 전부로 본다면 큰 오산이다. 진정한 예배는 각자가 매순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서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 그 자체가 예배다. 우리가 살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 사랑하고 분노하는 것, 다른 이들을 돕거나 그들에게 의지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예배인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 자신을 살아있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일만한 제물로 드리는 것’, 곧 진정한 예배는 어떤 형식적인 틀을 갖추고 드리는 의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으심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렇게 살아난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아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골고다에서의 그 엄숙한 광경이 바로 예배다.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심으로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 주셨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타인을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날마다 살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 자비를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고 거룩한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 하지만 살아있음, 거룩함, 하나님께 합당함, 이 모든 것이 대개는 관념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한다.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기적인 마음을 모두 버리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때론 타인들의 마음을 날카로운 면도날로 후벼팔 때도 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그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이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 주시고 새 생명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필자는 지금 성도들에게 이기적인 성격을 고치라고 권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런 결핍된 성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새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하나님은 만신창이인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우리를 거룩하다 하신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완벽하게 고친 후에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 아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면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삶의 모진 고통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지도 않는다. 스스로를 결혼식을 눈앞에 둔 신부라고 가정해 보자. 누구에게나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다. 신부인 우리는 결혼식이 열리는 야외 공원으로 예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는 행여나 흙이라도 묻을까 조심조심 걷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남루하고 찢어진 옷을 입은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 숨을 헐떡이며 자기를 살려 달라고 애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드레스야 더러워지든 말든, 곧 이어 있을 신부 입장이 늦어지든 말든, 더 나아가 그날 결혼식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도와 줄 수 있을까? 정말 그 상황에서 진정한 자비를 베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게 예배라면 과연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성도가 제물로 드러지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희생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룩이란 더러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깨끗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상처를 싸매주고, 약을 발라 치유해 주고, 순결한 예복을 입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세우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모든 것을 염치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우리는 쓰러져 거의 죽게 된 자요 누군가가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던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거룩한 제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 하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자로서 거룩하고 합당한 제물이 되었다.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피해 갔던 우리들을 예수님은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 주셨다. 그리고 그분 덕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되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때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예배 (3):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 12:1~2)

- ¹ Παρακαλῶ οὖν ὑμᾶς, ἀδελφοί,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διὰ τῶν οἰκτιρῶν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παραστήσαι τὰ σώματα ὑμῶν (너희 몸을 세우라)
θυσίαν ζῶσαν ἁγίαν εὐάρεστον τῷ θεῷ, (하나님 앞에 살아 있고,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을)
τὴν λογικὴν λατρείαν ὑμῶν·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 ² καὶ μὴ συσηματίεσθε τῷ αἰῶνι τούτῳ,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ἀλλὰ μεταμορφοῦσθε τῇ ἀνακαινώσει τοῦ νοῦς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라)
εἰς τὸ δοκιμάζειν ὑμᾶς τί τὸ θέλημα τοῦ θεοῦ, (그 결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이다)
τὸ ἀγαθὸν καὶ εὐάρεστον καὶ τέλειον.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제사다. 그리고 제사는 누군가의 죽음을 의미한다. 제사엔 반드시 희생 제물이 드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성도 자신이 제물이라 말하고 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제사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읽어보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당신들을 권면한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너희 몸을] 살아 있고, 거룩하며, 받아들일만한 제물로 [세우도록],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다.”(롬 12:1).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죽음을 통과하여 새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물로 드릴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과한 후에는 우리가 살아 있고,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받아들일만한 제물이 될 수 있다. 제물이 된다는 것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진정한 예배는 성도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실제 삶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 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적이었다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괜찮은 존재로 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 혹자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필자는 공로라는 말보다는 연합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¹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찌어다 ¹⁵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¹⁶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4-16).

우리는 어쩌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격은 예수님과 동일한 자격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리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때론 분노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며 때론 이기적으로 살 때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가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가 아닌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필요충분 조건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냈다는 말이 아니다. 이토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모든 조건들을 만드셨고 우리가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이다. 성도 개개인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든 상관없다.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상관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차례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형제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비판하지 않고 받아 주고 있는가? 성경에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를 용서해주셨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감동하면서도 실제로는 텔레비전 뉴스를 장식하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예배자라 할 수 없다. 용서받음이란 죄 지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 계속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니다. 주위의 형제 자매가 죄를 지었을 때 그에게 돌을 들지 말고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이다. 용서란 용서받는 이에겐 은혜지만 용서하는 편에서는 그만큼 희생을 감수하고 양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살면서 끊임없이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행해야 할 제사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실제 삶이다. 나의 삶 속에서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럴 때 비로소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 그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몸이 된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예배자들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제물로 드려지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은 삶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예배자로 서 가고 있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 12:1~2)

- ¹ Παρακαλῶ οὖν ὑμᾶς, ἀδελφοί,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διὰ τῶν οἰκτιρμῶν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παραισῆσαι τὰ σώματα ὑμῶν (너희 몸을 세우라)
 θυσίαν ζῶσαν ἁγίαν εὐάρεστον τῷ θεῷ, (하나님 앞에 살아 있고,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을)
 τὴν λογικὴν λατρείαν ὑμῶν·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 ² καὶ μὴ συσημαίεσθε τῷ αἰῶνι τούτῳ,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ἀλλὰ μεταμορφοῦσθε τῇ ἀνακαινώσει τοῦ νοῦς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라)
 εἰς τὸ δοκιμάζειν ὑμᾶς τὸ θέλημα τοῦ θεοῦ, (그 결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이다)
 τὸ ἀγαθὸν καὶ εὐάρεστον καὶ τέλειον.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로마서 12장 2절은 두 개의 명령과 그 명령에 따른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명령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다.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즉 성경의 명령대로 변화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며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이 명령은 성도 모두를 향한 명령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예배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은 매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제물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 그렇다면 딱딱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시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은 우리에게 생각의 틀을 바꾸라고 주문한다.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말은 기존에 갖고 있던 사고의 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각의 틀을 가지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 명령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쓰인 ‘본받는다’는 말은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정도를 뜻하지 않는다. 이미 체화되어 굳어진 생각의 틀을 따라 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받지 말라는 건 그런 생각의 틀을 깨부수라는 뜻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해해오던 틀을 버리라는 것이다. 봉어빵이나 국화빵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국화빵 틀에 재료를 부르면 국화빵이 나오고 같은 재료로 봉어빵 틀에 부르면 봉어빵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이 있다. 하나는 이 세대가 준 가치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가치관이다.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의 가치관, 기존의 세계관의 틀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우선 세상적 가치관이라 하면 대개의 경우 부도덕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바울이 말한 ‘이 세대’는 사도 바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철학을 지칭한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누구나 공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말한다. 바울이 말하는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D 50년대 로마 제국 시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영향을 준 세계관은 크게 두 가지였다. 종교적으로는 유대주의가 기승을 부렸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 중 대다수가 부활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이 강조한 것은 절기 문제, 음식 문제 등이었다. 믿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의 믿음의 토대인 율법을 버리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했다. 결국 그것은 후에 로마 교회의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을 향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 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²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³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롬 14:1-3).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다름 아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틀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끼워넣은 셈이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율법주의가 나왔다. 사도 바울이 11장까지 논증한 핵심 주제는 오직 믿음이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다. 믿음의 반대는 자기 의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역에 기반을 둔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 의는 구원의 기반을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자기 자신의 노력에 둔다. 이처럼 자기 의를 중시하는 율법주의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집착하게 돼 있다. 만약 믿음을 율법주의의 틀로 찍어낸다면 그 결과는 타인을 향해서는 비판과 정죄가 나오고, 자신을 향해서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나오기 마련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월감과 교만을 보이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율법주의의 산물이다. 율법주의의 틀로 복음을 이해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

이방인들, 특히 로마 교회에 속해 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는 매한가지였다.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그들만의 세계관과 철학에 물들어 있었다. 1세기 중반 로마 사회를 지배한 중심 사상은 스토아 철학이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들은 이 세상의 근원을 로고스로 보았다. 원래 로고스가 존재했었고, 그 로고스는 선한 것이며 악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다. 그 로고스가 세상 만물이 되었다. 따라서 스토아 사상에서 도덕 철학이 나온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나도 선하고, 타인도 선한 존재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선하다. 따라서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야 한다. 자유자든 노예든 다 같이 선한 존재이므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당시의 세계관이었다. 이런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은 당연히 교회 사상에도 영향을 주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가르쳤다. 이런 사상은 얼핏 보면 기독교 사상과 매우 닮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건 아니다. 성경은 그와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며 그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말한다. 성경은 인간 안에 로고스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로고스가 없으니 당연히 모든 것은 악하고 부패한 상태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로고스가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게 되었고 그 때 비로소 선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바울이 말하는 세계관의 변화는 바로 내 안에 장착된 기존의 세계관을 버리는 일이다. 하지만 이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다.

묵상을 위한 질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나요? 그것은 이 세대의 가치관과 어떻게 다릅니까?

생각의 틀을 바꾸라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 12:1~2)

- ¹ Παρακαλῶ οὖν ὑμᾶς, ἀδελφοί,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διὰ τῶν οἰκτιρῶν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παραστήσαι τὰ σώματα ὑμῶν (너희 몸을 세우라)
θυσίαν ζῶσαν ἁγίαν εὐάρεστον τῷ θεῷ, (하나님 앞에 살아 있고,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을)
τὴν λογικὴν λατρείαν ὑμῶν·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 ² καὶ μὴ συσηματίεσθε τῷ αἰῶνι τούτῳ,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ἀλλὰ μεταμορφοῦσθε τῇ ἀνακαινώσει τοῦ νοῦς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라)
εἰς τὸ δοκιμάζειν ὑμᾶς τί τὸ θέλημα τοῦ θεοῦ, (그 결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이다)
τὸ ἀγαθὸν καὶ εὐάρεστον καὶ τέλειον.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말이 나온 김에 당시 스토아 철학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 바울과 동시대의 인물이면서 서로 상반된 삶을 살았던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있다. 세네카는 기독교를 폄박했던 폭군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다. 그의 세계관은 스토아 철학에서 왔다. 그의 글을 통해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는지 간접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다음은 그가 쓴 글에게 인용한 내용들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류애가 창조될 때 이미 심겨져 있다. 따라서 그들이 깨우쳐지고, 모티베이션이 되면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그 본성을 깨닫게 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본성적으로 모두 평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즉, 모든 인간들—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귀족이나 평민이나, 자유자나 종이나—은 본질적으로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

“인간은 누구나 창조때부터 로고스 (기독교의 하나님 같은 것)의 일부분을 받아 왔다. 그 결과 인간은 누구나 공통의 로고스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신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신성하게 만든다.”

“자연(Nature)은 인간들이 상호 관련을 가지도록 창조하였으며, 그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인간들의 삶은 친절과 조화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돕도록 연합되어있다. 따라서 인간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여야 한다.”

위의 구절들은 예수님이나 바울이 한 말이 아니다.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가 한 말이다. 그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하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독교의 가르침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의 도덕과 기독교 윤리를 제대로 구분해내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 로고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로고스는 이미 만물 안에 내재함으로 그 역할이 끝난 셈이다. 남은 것은 로고스를 품은 인간들이 로고스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초월적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당연히 초월적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든 만물 안에 내주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4절을 읽어보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² 그가 태초에 하나

님과 함께 계셨고³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14).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이어 단어가 로고스다. 요한복음 1장 1절만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마주하고 계셨다.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로고스는 세상 만물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이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로고스가 세상 만물로 변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스토아 철학은 이 세상은 신의 피조물이 아니며 그 자체가 사실상 로고스와 한 덩어리라고 말한다. 그들에게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신이 깃들어 있으니 세상 만물이 곧 신이다. 당시 이러한 사상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지배했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사상에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생각의 틀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 기란 불가능하다.

오늘날 우리들을 지배하는 생각의 틀은 무엇일까? 바울 당시처럼 여전히 율법주의, 도덕주의가 우리를 지배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선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로는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율법주의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 이런 생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벗어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선과 악,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의 이분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돼 버린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오늘날 교회가 처한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종교 다원주의다. 이 사상은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다원화한다.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절대적인 것을 배격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절대 진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적이다.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은 진리는 하나지만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고 많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라며 비난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기 전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세계관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성도는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로 복음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세대가 따르는 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도 안 된다. 그런 사고관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게 될 뿐이다. 우상은 헐리웃 영화에 나오는 빨 달린 고약한 존재가 아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뜻이 왜곡되어 전달된다. 그 결과 자칫 잘못 하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예배하게 된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적인 사고의 틀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유일한 도구다.

묵상을 위한 질문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관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나요? 당신은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